

# “다양한 기법 판화 광주서 선보여 행복”

한국-프랑스 교류 '코레라송' 참여  
광주서 개인전 갖는 佛 판화작가 3인

마일라흐, 판화·드로잉 40여점 전시  
지하호 “한국판화 만의 기법 인상적”  
릭 티브흐, 한지 활용 투명 작품 주목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프랑스 판화작가들의 작품을 집중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눈길을 끈다. 노르망디 루앙과 파리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작가들과 광주를 중심으로 한 한국 작가들이 판화 미술 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결성한 '한국-프랑스 교류-COREllation(코레라송)' 전시 행사 일환이다.

프랑스 작가 10명은 한국 작가들과 함께 최근 무등갤러리 등에서 그룹전을 열었고, 릭 티브흐 등 3명의 작가는 3곳의 갤러리에서 각각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노르망디 지역을 대표하는 판화가 모히즈 마일라흐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목담미술관에서 작가들을 만났다.

'코레라송' 회장이기도 한 모히즈 마일라흐는 “판화라는 게 기본적인 기법은 똑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기법이 어떻게 변용되고 발전하는지 함께 모여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게 흥미롭다. 그게 교류전의 매력이다. 각국의 예술 정신이 모이는 과정이기도 해 교류전은 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5년 넘게 판화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무등판화미술대학을 졸업하고 60회 이상 개인전을 진행했다.

“프랑스 전통 판화는 흑백 작품이 많은 반면 한국 등 아시아의 판화는 컬러풀하다. 내 작품은 자연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는다. 시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그 느낌이 작품을 보는 개인들에게 잘 전해지길 바란다. 자연의 흔들림과 느낌을 담아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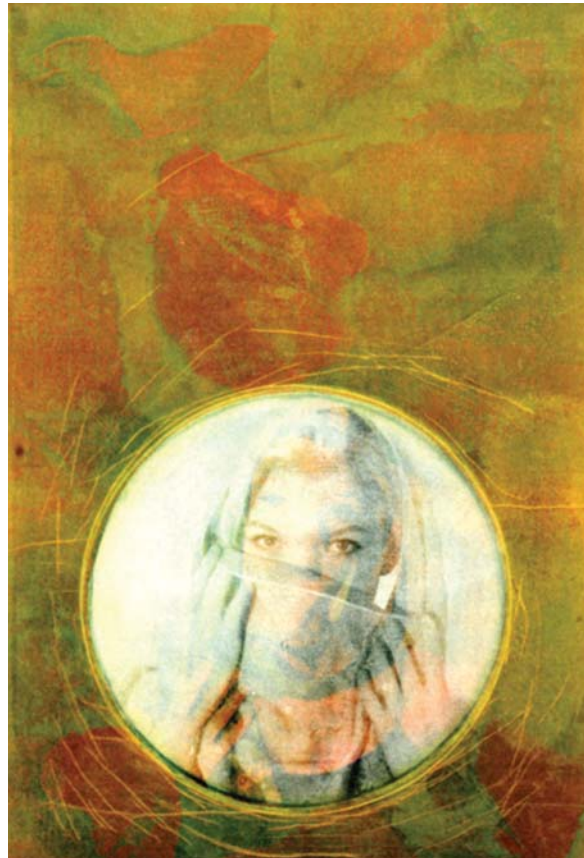
판화, 드로잉 등 40여점을 선보이는 그는 자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작품 세계와, 산이 보이고 나무로 둘러싸인 전시공간 목담미술관(9월5일까지)이 잘 어울린다고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창립멤버이기도 한 파스칼 지하호는 노정숙 작가와 함께 모임 구성의 산파역할을 했다. 노 작가의 프랑스 개인전을 우연히 접한 그는 “아시아의 판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 에너지, 무엇보다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판화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노 작가를 자신의 아틀리에에 초대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인연이 이어졌고, 프랑스 작가의 참여를 독려하며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판화기법을 활용하는 작가들이 많다. 반면 광주 등 한국 작가들은 테크닉도 좋지만 전통기법을 넘어 본인만의 스타일과 기법으로 찾아내 독특



광주에서 각각 개인전을 열고 있는 프랑스 작가 파스칼 지하호, 모히즈 마일라흐, 릭 티브흐(왼쪽부터) 작가가 목담미술관에서 포즈를 취했다.



릭 티브흐의 판화작품.

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인상적이다. 작가는 작품으로 여행하는 게 가장 행복하네 멀리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내

작품을 광주에서 선보인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오는 25일까지 전남대 용지관에서 개인전을 갖는 그는 “판화의 매력은 선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며 시간을 느끼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스페인 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작가로, 독특한 판화기법으로 유명한 릭 티브흐의 작품은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흥미롭다. 오는 31일까지 한국미술박물관(전남대 후문 인근)에서 개인전 ‘시간의 흔적’전을 여는 그는 전시 장소인 ‘미술박물관’의 성격에 맞게 여성을 소재로 한 신작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은 홀로그램처럼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며 비치된 플래시를 이용해 작품을 비춰가며 관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동판화를 사용했는데 요즘엔 아크릴판을 이용하고 한지를 적극 활용해 투명함을 강조한다. 변덕스러운 노르망디의 빛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상파 작가 그룹이 생겨났듯이 내 작업 역시 한지의 투명함 속에 반영되는 다양한 이미지에 주목했다. 두꺼운 종이에 작업을 하면 가장 아래쪽 색깔은 보이지 않지만 한지로 작업을 할 경우 겹겹이 쌓아놓은 것들이 다 보이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추억과 유사하다. 이미지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쌓여있는 것처럼.”

동양적 요소에 관심이 많아 중국 한지를 적극 활용하는 그는 이번 광주 방문 때 예술의 거리에서 한국 한지를 구입하기도 했다. 목담미술관 문의 062-384-9298. 한국미술박물관 062-514-6625. /김미은 기자 mekim@

## 최상준 남화토전 대표 기증 미술품 전시회

내일부터 한달간 유당갤러리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기부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쳐왔다.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은 최상준 남화토전 대표가 기증한 미술품 전시회를 24일부터 한 달간 유당갤러리(관장 박종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상준 대표는 “이웃과 공유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려와 나눔의 미학’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최상준 대표가 틈틈이 모아 온 동·서양화 35점을 선보인다.

한편 유당갤러리는 청년작가를 비롯한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하고,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남화토전의 후원을 받아 개관했다.

주요 전시 작품은 남농 허건의 ‘산수화’, 아산 조방원의 ‘관폭도’, 조규일의 ‘모란’, 송용의 ‘계곡’, 황형성의 ‘가족 이야기’, 이태길의 ‘축제’, 오건택의 ‘과수원’, 한희원의 ‘동백꽃’ 등이다.

2013년 남화토전의 후원을 받아 개관했다. 지금까지 김익모 교수 초대전, 황윤주·이병오·정진희 그림전, 박종철교수 소장 미술품전, 산청 향이리전, 광주·전남 사진기자회 보도사진전 등을 개최했다.

최 대표의 결식아동 돕기, 중·고교대학 장학금 전달, 광주 석봉도서관 기부,

개막식은 24일 오전 11시 열린다. 문의 061-382-7456. /김미은 기자 mekim@



▶조방원 작 ‘관폭도’

## 민화의 매력 속으로

광주전통민화협 회원전

25일까지 무등갤러리

다채로운 민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제8회 광주전통민화협회(회장 성혜숙)전이 25일까지 광주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운고지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회원들은 화조도, 모란도, 연화도, 책가도 등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8년전 모임을 결성한 회원들은 함께 공부하며 민화 작업을 계속해왔고 출범 초기 10명이었던 회원은 지금 20여명으로 늘어났다.

고재희 회원은 잉어와 연꽃, 보라색 창포가 어우러진 ‘창포가 피던 날’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광자 회원은 꽃과 각양각색의 나비와 어우러진 ‘화접도’를 전시하고 있다. 또 문세정 회원은 ‘바리공주도’를, 김수현 회원은 ‘푸꾸는 방’을 선보이고 있다.

고선미·김명자·김명희·김민희·문승미·서은선·신윤희·유연이·전미란·이영자·정미숙·정혜윤씨 등 20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성혜숙 작 ‘화조도’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19년 11월까지 휴관...광주역사공간 구축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조만호)은 '민속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공간 구축' 사업의 착수로 오는 30일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올해로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시립민속

박물관은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다. 개보수로 노후화된 외관 시설을 개선하고 민속 위주로 된 상설전시실을 민속 및 광주역사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광주역사를 들여다 보는

새로운 창을 제공함과 동시에 누구나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한 발 다가서고자 한다.

아울러 연간 30만 명에 달하는 민속박물관 이용객을 위해 2018년 9월 19일부터 박물관 본관 기획전시실에서 ‘삶의 터전,

남도를 돌아보다’ (가제)를 주제로 대체전시실을 운영해 지속가능한 상설전시 기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기간에 상설전시실의 전시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박물관 외관도 산뜻하게 단장할 예정이다 휴관 기간 중에도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과 월계동 장교분은 정상 운영된다. /박성진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